

# 바른미래 해체 수순...호남기반 3당, 통합·신당 갈림길

### 비례대표 9명 셀프제명 지역구 의원들도 곧 탈당 오늘 최고위 孫 선택 주목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 의원들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이날 제명된 의원은 김삼화·김수만·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이다.

제명된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기존 17명에서 8명으로 줄었으며,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권은희 의원 등도 조만간 탈당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당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제명된 의원 중 안철수계 의원 5명은 안철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 맞춰 국민의당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중로 의원은 이미 지난 17일 당적 변경을 전제로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비례대표 의원만을 당에 남겨두고 (탈당해) 가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제명의 이유를 설명하고 "21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민주당 실정,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무능,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대안신당,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3당 의원들이 이미 '민

주 통합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를 등록해 느슨한 연대를 시작한 상태라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당내의 지역구 의원들마저 탈당,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보고 있다.

일단, 3당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손 대표가 3당 통합 합의안을 '보류'한 상황이라서 이날 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대표가 3당 통합 합의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0일까지 아직 제명하지 않은 박주현·채이배·박선숙·장정숙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2차 셀프제명'에 나서고 주말까지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3당의 통합 전선은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호남 중진들이 합류하는 방식은 3당 통합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당 의원들이 이미 '민주 통합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를 등록한 상황이라서 다음 달 초를 마지노선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기초 3번이 가지도 있는 정치적 프리미엄도 결집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호남지역 야당 의원들은 3당 통합이나 신당 창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순천 분구 등 호남 지역구 살리기와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고 민심에 백의중군하겠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경제 비상 상황...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 "코로나, 사스때보다 긴 충격"

### 경제주체별 맞춤형 대책 주문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

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절박한 상황 인식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의 성과 도출을 국정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분명한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액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시 바란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기반 3당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못 한다

### '통합민주당' 2016년 등록

### 선관위 "유사명칭 금지"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통합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의 신설 합당 이름으로 '민주통합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난주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민주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정당 명칭과 유사하거나 동일해 정당법 41조에 따라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통합민주당' (약칭 통민주당)은 지난 2016년 5월 정당으로 등록된 상태다.

앞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과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도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를 거쳐 3당이 합당하고 신당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총선대책위 내일 발족 본격 선거전...전략지역 추가 지정

### 임종석 선대위 합류 끝내 고사

### 영입인재 출마 지역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목요일(20일) 선대위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선대위원장으로 진용을 꾸린 뒤 이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의 좌장 격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투톱' 체제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는 공천과 선거전략 등을 담당하고, 이 전 총리가 자신이 출마하는 서울 중포를 비롯한 수도권과 핵심 승부처를 돌며 지원 유세를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K(대구·경북)를 맡을 김부겸 의원, 부산을 맡을 김영춘 의원, 경남을 맡을 김두관 의원, 강원을 맡을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당이 선대위원장 합류를 권유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종 고사 의사를 밝혀 함께하지 않지만, 향후 '백의중군' 등의 형식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당연직 선대위원

장을 맡고, 직능별 대표, 일부 영입인재도 선대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선대위를 발족할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줄어 세력을 만들어 (공천을) 진행할 것이다. 경선은 빠르면 24, 25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내보낼 선수를 확정하기 위해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입당인사, 영입인재들의 출마 지역구도 속속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과 동작을 중 어느 지역에 투입할지 마지막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역시 광진을과 동작을 전략공천을 검토 중이라, 두 사람이 두 지역에 나눠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은 이수진 전 판사의 경우 한준호 전 아나운서와 함께 전북 전주병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전주병은 김성주 후보가 단수로 공천을 신청해 추가공모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 전 판사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 경기 의왕·과천 투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신세계안과

#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